

◆ ICID 제18차 총회 및 제53차 집행위원회 회의 참가

ICID 제18차 총회 및 제53차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었다. 총회 주제는 「물부족, 인구증가, 환경문제를 종합 고려한 식량생산」으로 총 400여편의 관련분야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가 인원은 44개국 700여명으로 우리 KCID에서는 허유만 회장 및 2001년 서울대회 조직위원장인 문동신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 토의된 중점 과제는 ▲ 제한된 수자원과 인구증가를 해결할 식량생산 및 환경보전 대책과 ▲ 관개배수 및 홍수조절의 종합관리로 종합토론 결과는 금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SSD)의 토론주제와 내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세계물포럼(WWF 3)에 반영될 것이다.

주요 참석인사로는 대회장인 캐나다 국제통상협력부 장관인 Ms. Susan Whelan, 내년 제3차 세계물포럼을 주관하는 세계물위원회(WWC) 총재이며, 이집트 수자원 및 공공사업성 장관인 Mahmoud Abu-Zeid 박사 등 10여명의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인 7월 22일에는 우리 위원회와 ICID 간척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지속가능 간척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이 워크숍에서는 환경친화적 간척지 개발, 간척 농지에서의 종합적인 물관리, 수질보전 대책 및 각국의 간척 역사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Bart Schultz ICID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에 말레이시아의 Ir. Hj. Keizrul bin Abdullah씨가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중국의 Mr. Cai Lingen, 나이지리아의 Engr. I. K. Musa, 스위스의 Prof.

Andre Musy 등 새 임원진이 선출되었으며, 그들의 임기는 2002~2005년까지이다.

◆ KCID 최우수 회원국상 수상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ID 제18차 총회 및 제53차 집행위원회회의에서 우리 KCID가 올해의 최우수 회원국상(Best Performing National Committee Award)을 수상하였다.

최우수 회원국상은 ICID가 매 3년 주기로, ICID에 대한 기여와 ICID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국가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2001년 ICID 서울대회시 제정되어, 우리 KCID가 제1회 수상국으로 선정되었다.

본 상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중한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수상한 트로피(Revolving Trophy)는 3년 동안 보관 후 차기 수상국에게 전달하게 되고, 상패는 수상국에서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



KCID가 수상국으로 선정된 이유는 1969년 ICID에 가입한 이후 30여년동안 ICID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하였으며, 지난 수년동안 과학 기술회의 등을 적극 주관하여 정보 교류 및 신기술 보급에도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특히 ICID 제52차 집행위원회 및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의 뜻을 높이 사 수상하게 된 것이다.



◆ ICID 『지속가능 연안발전분과위원회』 위원장 - 박상현 이사 선출

지난 7월 ICID 몬트리올 총회에서 『지속가능 연안발전분과위원회(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Tidal Areas)』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분과위원회의 초대 위원장(Chairman)은 우리위원회 박상현 이사가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Vice Chairman)은 영국 월링포드 Jonathan Shimm 박사가 선출되었다. 이 분과위원회는 우리 KCID가 1999년 설립토록 제한한 이후, 아시아지역분과위원회의 Task Force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2001년 ICID 서울대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정식 발족하였으며, 현재 일본, 화란,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및 FAO에서 추천한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분과위원회의 주요 목표는 세계적인 연안의 환경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간척지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 모색하여 지혜로운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다.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간척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좁은 의미로는, 바다의 천문 기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동하는 조석 운동에 의하여 노출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은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개발되거나 변화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활동 영역이 미치는 지역을 포함하며, 바다쪽으로는 준설사업이 행하여지는 수심

30 m 지대까지를 포함하며, 육지쪽으로는 조석의 영향이 미치는 하구까지를 포함한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지난 100년간 세계 습지의 절반이 개발되었지만 식량과 수자원은 더욱 고갈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75%가 바다에서 100 km 이내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보다 지혜로운 개발과 보존 대책이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총회 기간중 이 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지속가능한 연안개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건국대학의 김선주 학장, ICID 회장인 Bart Schultz 교수 그리고 영국, 일본 등의 대표들이 종합적인 간척지 발전 방향과 물 관리 및 각국의 간척역사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워크숍의 발표집은 우리 위원회가 접수 및 편집 등 발간 작업을 지원하였다. 또한 내년 프랑스 몽펠리에 ICID 회의시 제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주제는 「담수호와 연안의 수질 및 토지 환경 관리」이다. 아울러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2005년까지 세계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핸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 젊은 기술인의 모임 개최

KCID 젊은 기술인의 모임(KCID-YPF)이 지난 7월 13일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박종민 위원장(농림부)을 비롯하여 박영진 간사(농업기반공사), 함중화(건국대), 한경수·박재홍·최선화(농업기반공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내용은,

- ▶ 『OECD 총비용 농업용수 가격』 자료 번역사업 평가
- ▶ KCID-YPF 활동방향 재점검
- ▶ 2002년도 하반기 활동계획 협의
- ▶ 신입회원 가입 권유